

고구려·수 전쟁

양제(煬帝)가 자초한 수(隋)의 멸망

598년 ~ 618년



고구려와 수의 전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1 수(隋)의 중원 통일

수의 중국 통일은 남조와 북조로 중원이 분열되었던 5세기와는 다른 국제 관계의 전개를 예고하였다. 진(秦)과 한(漢)의 전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원의 통일은 곧 국제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졌고 수도 중원 중심의 일원적 국제 질서의 확립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와 돌궐로 대표되는 주변의 강국들은 병렬적이고 독립적이었던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원 중심의 질서를 주변국에 강요하는 수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고구려의 대립은 불가피하였다.

2 590년 수 문제(隋文帝)의 새서(璽書) 내용

589년 수는 진(陳)을 멸망시키고 명실상부한 중원 통일을 완성한 후 시선을 고구려로 돌렸다. 고구려는 진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관련사료](#) 고구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수 문제는 평원왕에게 새서를 내려 위협하였다. 그 내용에서는 고구려가 말갈과 거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의 노수(弩手)를 몰래 데려가 병기를 수리한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였다. 또한 수에서 파견한 사신을 공관(空館)에 두고 눈과 귀를 막으면서 고구려 사신은 수의 정황을 은밀히 정탐하고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을 멸망시킨 과정을 설명하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진에 비해 훨씬 쉽다고 하면서 고구려를 위협하고 있다. [관련사료](#)

3 수와의 전쟁 대비

수는 중원 중심의 일원적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고구려와 돌궐 등은 남북조 분열기의 다원적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수와 주변국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연전가는 일어날 예고된 사건이었다. 고구려는 수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평원왕을 이어 즉위한 영양왕도 수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영양왕은 즉위 다음해인 591년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리며 책봉을 요청하였고 [관련사료](#) 이에 수 문제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고 수레와 의복을 주었으며, [관련사료](#) 고구려는 이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문제에게 감사를 표했다. [관련사료](#)

591년에만 고구려는 수에 사신을 두 차례 파견하였고 수도 고구려왕에게 수레와 의복을 내리는 등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우호를 다지는 듯하였다. 사신(使臣)은 일종의 공인된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 문제의 새서에서도 고구려의 사신이 수의 정황을 은밀히 정탐하고 간다고 언급하